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5호 [무게 제25013호] 주제 104 (2015)년 8월 23일 (일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가 긴급소집된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가 긴급소집된 소식을 21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20일 밤 긴급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21일 17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대원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선상태로 이철할것을 명명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와 관련한 보도는 《적들이 48시간안에 심리모략방송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심리전수단들을 격파사격하기 위한 군사적행동과 있을수 있는 적들의 반작용을 진압하기 위한 지역의 군사작전을 지휘할 지휘관들이 임명되어 해당 전선으로 급파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 나라의 인베르라스통신, 신문들인 《로시사카 가제타》, 《아르구엔

퍼 이 라퍼》, 《모스콥스키 프소블레즈》, 로씨야 24TV방송, 예호 모스크비방송, 인터넷통신인 펜타, 루, 에르베카를 비롯한 출판보도물들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월남의 중앙TV방송과 브이엔엑스 프레스를 비롯한 인터넷통신들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반도정세가 전례없이 긴장해지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긴급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지도하시었다.

이끼에서 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전선대원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선상태로 이철하며 전선지대에 전진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명령을 하달하시었다.

이끼의 프레스TV방송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는 불가피한 정황에 따라 전선에서 일제히 반격, 반공격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결사의 조국수호정신, 지솟는 보복의지의 분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가 전해진 하루동안 100여만명의 청년들 인민군대 입대, 복대 환원

【평양 8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광기어린 반공화국적군사적도발로 하여 나라의 정세가 전쟁정경으로 치닫고있는 때에 전국각지의 청년들이 조국결사수호의 신념과 원수적멸의 의지를 안고 조국보위정선에 용약 떨쳐나서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가 전해진 후 하루동안 전국적으로 100여만명의 청년들이 인민군대에 입대, 복대환원을 열렬히 단행하였다.

각지의 열혈청춘들이 침략의 무리들과의 무자비한 복수정전에 앞을 닦아 나서고있는것은 그 어떤 땅에서 휘몰아쳐도 혁명의 수뇌부와 운명을 함께 하며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 사상과 제도, 정권과 삶의 피천을 사수하려는 투철한 조국수호정신의 발현으로서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에 대항하는 파리로 된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원수들은 우리 공화국의 한치의 땅, 한포기의 풀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10월의 경축광장에 뗏목이 들어서기 위하여 대고격전장들마다에서 청춘의 빛나는 위훈을 새우고있는 승리와 영광의 기적이이신 정경에서 배두정춘의 기상이 세차게 나타나는 백만정춘의 복수의 도가나로 화를 함께 하며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 사상과 제도, 정권과 삶의 피천을 사수하려는 투철한 조국수호정신의 발현으로서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에 대항하는 파리로 된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원수들은 우리 공화국의 한치의 땅, 한포기의 풀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10월의 경축광장에 뗏목이 들어서기 위하여 대고격전장들마다에서 청춘의 빛나는 위훈을 새우고있는 승리와 영광의 기적이이신 정경에서 배두정춘의 기상이 세차게 나타나는 백만정춘의 복수의 도가나로 화를 함께 하며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 사상과 제도, 정권과 삶의 피천을 사수하려는 투철한 조국수호정신의 발현으로서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에 대항하는 파리로 된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원수들은 우리 공화국의 한치의 땅, 한포기의 풀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10월의 경축광장에 뗏목이 들어서기 위하여 대고격전장들마다에서 청춘의 빛나는 위훈을 새우고있는 승리와 영광의 기적이이신 정경에서 배두정춘의 기상이 세차게 나타나는 백만정춘의 복수의 도가나로 화를 함께 하며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 사상과 제도, 정권과 삶의 피천을 사수하려는 투철한 조국수호정신의 발현으로서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에 대항하는 파리로 된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원수들은 우리 공화국의 한치의 땅, 한포기의 풀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와 관련한 보도는 《적들이 48시간안에 심리모략방송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심리전수단들을 격파사격하기 위한 군사적행동과 있을수 있는 적들의 반작용을 진압하기 위한 지역의 군사작전을 지휘할 지휘관들이 임명되어 해당 전선으로 급파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 나라의 인베르라스통신, 신문들인 《로시사카 가제타》, 《아르구엔

10월의 경축광장에 뗏목이 들어서기 위하여 대고격전장들마다에서 청춘의 빛나는 위훈을 새우고있는 승리와 영광의 기적이이신 정경에서 배두정춘의 기상이 세차게 나타나는 백만정춘의 복수의 도가나로 화를 함께 하며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 사상과 제도, 정권과 삶의 피천을 사수하려는 투철한 조국수호정신의 발현으로서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에 대항하는 파리로 된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원수들은 우리 공화국의 한치의 땅, 한포기의 풀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침략의 무리들을 최후멸망의 무덤속에 처넣고 영웅조선의 승리의 전통을 빛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에 접한 각계의 반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어떤 도발과 전횡책동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징벌을 가할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

식에 접한 일꾼들과 당원들, 각계각층의 근로자들이 공장과 농장, 교정을 비롯한 일터들마다에서 감히 우리의 사회주의를 어찌보려고 어리석게 날뛰고있는 괴뢰적책동의 무분별한 전횡책동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원수적멸의 피를 용암마냥 펄펄 끓이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에 접한 일꾼들과 당원들, 각계각층의 근로자들이 공장과 농장, 교정을 비롯한 일터들마다에서 감히 우리의 사회주의를 어찌보려고 어리석게 날뛰고있는 괴뢰적책동의 무분별한 전횡책동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원수적멸의 피를 용암마냥 펄펄 끓이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에 접한 일꾼들과 당원들, 각계각층의 근로자들이 공장과 농장, 교정을 비롯한 일터들마다에서 감히 우리의 사회주의를 어찌보려고 어리석게 날뛰고있는 괴뢰적책동의 무분별한 전횡책동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원수적멸의 피를 용암마냥 펄펄 끓이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에 접한 일꾼들과 당원들, 각계각층의 근로자들이 공장과 농장, 교정을 비롯한 일터들마다에서 감히 우리의 사회주의를 어찌보려고 어리석게 날뛰고있는 괴뢰적책동의 무분별한 전횡책동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원수적멸의 피를 용암마냥 펄펄 끓이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에 접한 일꾼들과 당원들, 각계각층의 근로자들이 공장과 농장, 교정을 비롯한 일터들마다에서 감히 우리의 사회주의를 어찌보려고 어리석게 날뛰고있는 괴뢰적책동의 무분별한 전횡책동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원수적멸의 피를 용암마냥 펄펄 끓이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에 접한 일꾼들과 당원들, 각계각층의 근로자들이 공장과 농장, 교정을 비롯한 일터들마다에서 감히 우리의 사회주의를 어찌보려고 어리석게 날뛰고있는 괴뢰적책동의 무분별한 전횡책동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원수적멸의 피를 용암마냥 펄펄 끓이고있다.

한 손에는 마지막 밤을, 다른 한 손에는 총을 들고

농업성 부상 리재현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에 접하고 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가슴이 끓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남조선괴뢰군부대는 이번이 제 무덤을 스스로 파고있다.

우리의 신성한 영토에 감히 불질을 하였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농업성 부상 리재현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에 접하고 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가슴이 끓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남조선괴뢰군부대는 이번이 제 무덤을 스스로 파고있다.

우리의 신성한 영토에 감히 불질을 하였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농업성 부상 리재현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에 접하고 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가슴이 끓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남조선괴뢰군부대는 이번이 제 무덤을 스스로 파고있다.

우리의 신성한 영토에 감히 불질을 하였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농업성 부상 리재현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에 접하고 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가슴이 끓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남조선괴뢰군부대는 이번이 제 무덤을 스스로 파고있다.

우리의 신성한 영토에 감히 불질을 하였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농업성 부상 리재현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에 접하고 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가슴이 끓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남조선괴뢰군부대는 이번이 제 무덤을 스스로 파고있다.

우리의 신성한 영토에 감히 불질을 하였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농업성 부상 리재현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에 접하고 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가슴이 끓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남조선괴뢰군부대는 이번이 제 무덤을 스스로 파고있다.

우리의 신성한 영토에 감히 불질을 하였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농업성 부상 리재현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에 접하고 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가슴이 끓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남조선괴뢰군부대는 이번이 제 무덤을 스스로 파고있다.

우리의 신성한 영토에 감히 불질을 하였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농업성 부상 리재현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에 접하고 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가슴이 끓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남조선괴뢰군부대는 이번이 제 무덤을 스스로 파고있다.

우리의 신성한 영토에 감히 불질을 하였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농업성 부상 리재현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에 접하고 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가슴이 끓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남조선괴뢰군부대는 이번이 제 무덤을 스스로 파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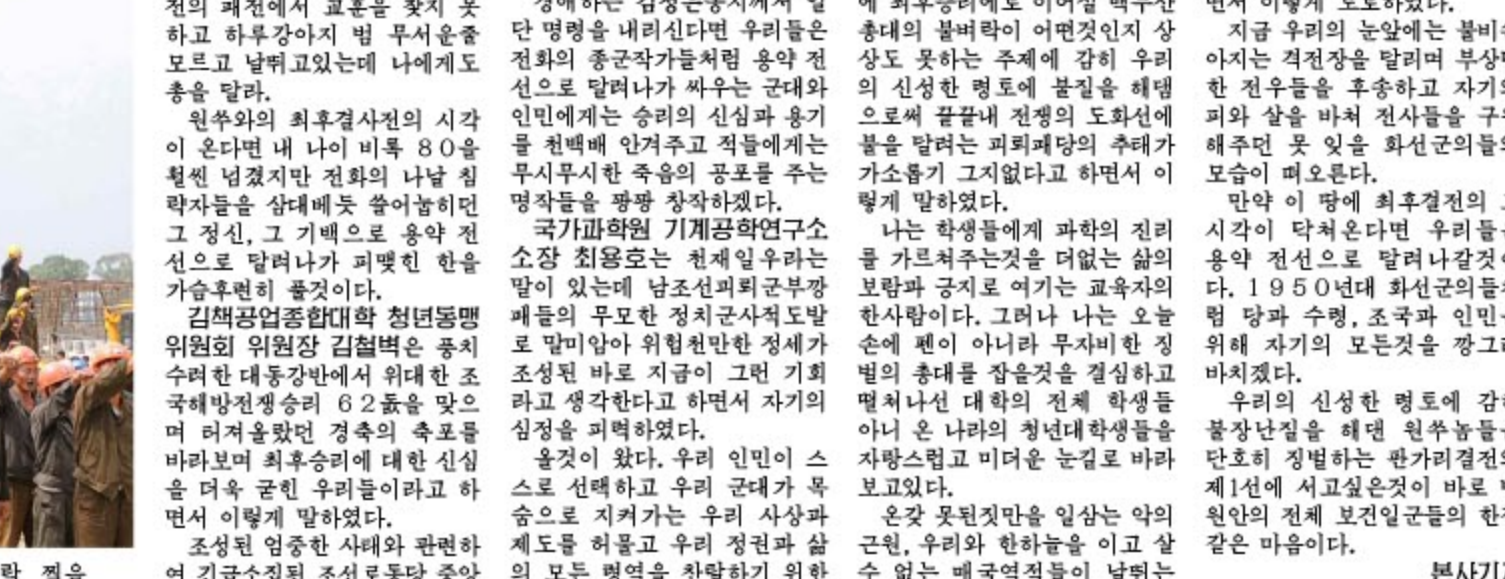
우리의 신성한 영토에 감히 불질을 하였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군관 김용철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에 접하고 정의의 조국수호정신을 시작하던 백두산총대로 원수들을 단애에 처할것을 명명하시었다.

우리는 총독대결에 환장하여 저들이 어떤 대역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날치는 이런 정신병자들의 대결통을 박살내는 심정으로 영농전투장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갔었다.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군관 김용철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에 접하고 정의의 조국수호정신을 시작하던 백두산총대로 원수들을 단애에 처할것을 명명하시었다.

우리는 총독대결에 환장하여 저들이 어떤 대역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날치는 이런 정신병자들의 대결통을 박살내는 심정으로 영농전투장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갔었다.



원수적멸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는 과학기술전당 건설자들

본사기자 팀 학락 적음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을 키우신 강철의 령장 김정일대원수님



불면불휴의 선군혁명령도로 영웅적조선인민군을 전하무적의 강군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90(2001)년 8월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60돐경축 열병식에서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81(1992)년 4월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을 위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94(2005)년 5월



망크병들의 훈련을 보아주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72(1983)년 4월



최전연애 위치한 인민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87(1998)년 11월



인민군군인들의 훈련을 보아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95(2006)년 4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일당백의 고향인 대덕산 초소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85(1996)년 3월



공화국영웅 김영조비행사의 학습장들과 자작시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85(1996)년 2월



군인들의 정치상화진행 정형을 료해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89(2000)년 7월



조선인민군 해군부대를 시찰하시고 무기를 수여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86(1997)년 6월

정론

최후의 승리를 기록하라!

전 전선이 활기찼다. 무적의 총검 빈틈이 쉼 없이 쫓아온 권위자들이

지적에 도사린 적소수를 멸적의 조건경연에 집어넣은 영웅의 고지 1211고지 근위병들이 복수의 피를

발삼으로 짓어대는 놈들의 개나발에 이가 갈라 못 참겠다. 어서 빨리 명종포탄을 퍼서 사격명령을 내리달라!

이미 공격술발구역을 차지한 전선부대 장병들이 앞을 다투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드리는 명서문에서 명하고있다.

《총대마다에 서리발치는 복수의 맹세를 단장약한 우리들은 적들의 대복심리전수단들은 물론 전략의 본거지들을 다지고다져는 백두산 혁명군대의 무적막강한 화력타격으로 무자비한 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 ...》

어찌 전선만이라, 온 나라가 증오의 불덩어리이다.

미친 놈들, 감히 어디다 대고! 놈들을 아예 죽여버려라!

이런 기회를 놈들을 쓸어버리고 최후승리를 안아오자!

누구나, 어디까지 이렇게 토론한다. 못 다 쓴 총탄을 가슴에 재워안고 최후결전의 시각을 꿈에도 기다리는

백발의 정경로병으로부터 신천의 백발의 권위의 복수를 다잡히는 끝날을 포박포박 일기장에 적어가는 나

이런 소년단원이 이르기까지야 땅 친민군인이 간악한 원수들과의 최후 결전을, 그로 하여 맞이하게 될 환희에 찬 최후승리의 그날을 바라고 또

바란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후 승리를 이어가자!

이것이 이 땅을 휩싸는 8월의 열기이고 의지이다. 바로 이것이 천만의 심장에 하나로 고동치는 철의 신념이며 혁명의 맹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의를 위해 일떠선 인민을 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

이다.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장장 60여년, 우리는 참으로 아리고 시련에 찬 날과 달들을 살아

왔다. 조국해방 일흔이 되는 이해의 8월에 도강국의 발하늘가에 오르는 축포를 보면서 우리는 분별의 아픔을

생각했고 저 축포가 어서빨리 최후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후 승리를 이어가자!

이것이 이 땅을 휩싸는 8월의 열기이고 의지이다. 바로 이것이 천만의 심장에 하나로 고동치는 철의 신념이며 혁명의 맹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의를 위해 일떠선 인민을 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

이다.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장장 60여년, 우리는 참으로 아리고 시련에 찬 날과 달들을 살아

왔다. 조국해방 일흔이 되는 이해의 8월에 도강국의 발하늘가에 오르는 축포를 보면서 우리는 분별의 아픔을

생각했고 저 축포가 어서빨리 최후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후 승리를 이어가자!

이것이 이 땅을 휩싸는 8월의 열기이고 의지이다. 바로 이것이 천만의 심장에 하나로 고동치는 철의 신념이며 혁명의 맹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의를 위해 일떠선 인민을 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

이다.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장장 60여년, 우리는 참으로 아리고 시련에 찬 날과 달들을 살아

왔다. 조국해방 일흔이 되는 이해의 8월에 도강국의 발하늘가에 오르는 축포를 보면서 우리는 분별의 아픔을

생각했고 저 축포가 어서빨리 최후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후 승리를 이어가자!

이것이 이 땅을 휩싸는 8월의 열기이고 의지이다. 바로 이것이 천만의 심장에 하나로 고동치는 철의 신념이며 혁명의 맹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의를 위해 일떠선 인민을 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

이다.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장장 60여년, 우리는 참으로 아리고 시련에 찬 날과 달들을 살아

후승리의 축포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놈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우리의 제의에 도전하여 놈들은 새해 정초부터 그 무슨 《인민문

제》를 펴며 북남관계개편의 일로를 미친듯이 내달았다. 한겨울의 얼음이

《지리책》 사전을 들고 전 전선에 남조선피괴군부장제들의 대복심리

전방술이 발발을 가리지 않고 악랄을 물어오른 사실과 인종분리주의를

무어던 악질반동단체들의 대복비라살포작전이 더는 방치할수 없는 지

경애까지 이른 사실도 우리는 남남이 제안하고있다.

사상 최대의 정치군사적도발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놈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불장난을 저질렀다. 지난 8월 20일, 잊지 못할 《북로탄발사》 사건을 구실로 신성

한 우리 공화국영토에 수십발의 포탄을 판사한 피괴군부호전병들의 무

모한 군사적도발, 어찌 산천초목이 치를 떨지 않으며 이 나라 천만군민

이 복수의 총상을 으스러지게 몰아잡지

않았겠는가. 모든것이 명백해졌다. 가면을 뒤집어

드러낸 반사포를 벗어던지고 침략 야망으로 드러낸 승냥이발발을 로

폭격으로 드러낸 8월의 사태이다. 놈들이 신성한 우리 공화국영토를

향해 쏘아낸 36발의 포탄, 생강탄 해도

찌어 떨어졌다. 이 세상 제일로 자기의 존엄과 자

주권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항하는 놈들이

마구 판사한 수십발의 포탄, 이것은 또 하나의 전쟁도발

행위이다. 우리에게 대한 탄핵한 도발이며

로폭적인 침략행위이다. 그 무엇보다도

변명할수 없고 어떤 꾀변과 전술수술로도

가려울수 없는 악착하고 간악한 침략자, 도발자들의 전쟁행위의 실증이다.

《이런 설명도 필요없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화대의 소식과 조선인민 최고사령부

김급보도가 발표된 지난 8월 21일

아침의 풍경을 우리 잠시 여기에 펼쳐보자.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머지않아 맞이하게 될

선군결과 청년절을 앞둔

두고 온 나라의 군대와 인민, 청년들이

이 명절전날에 설레이던 날들중의 하루였다.

그날 《로동신문》에는 백두산선군청년 1호발전소전설장

에서 연세한공을 앞당기는 마지막공격전의

불길기 새차게 타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파악기술전당의 실내 및 야외파악기술전시장

전시준비가 마감단계에 들어갔다

는 소식, 함포모방직공장에서

년간간계회소식자내외가 놀아나던

소식이 기쁨에 넘쳐 보도되었다. 바로 그날

전세계는 들었다. 그 하루전인

8월 20일 오후 전선중서부지역에서

적들이 아군진영소초를 목표로 36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엄청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김급보도를 보도했다. 마치 60여년전

6월 25일의 아침을 편상해 하는

광풍의 꿈을 안고 맞이한 일요일의 아침,

방출에서 울려오르는 놈들의 치명리는

침략전쟁도발소식을 들으며 증오와

복수의 두주먹을 불끈 들어우려

우려 인민, 말라건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놈들은 그 때에도 평화의

고관자, 악착한 도발자, 야수같은

침략자로서의 본색을 추호도

말리지 않았다. 그러나 어렵다

했다. 최후의 승리로 향한 우리의

전진과 10월의 경축광장으로

내달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드리우려는 놈들의 악착하고

음흉한 침략전쟁행동은 우리

천만군민의 복수를 다잡히는 끝날을 포박포박 일기장에 적어가는

나 이런 소년단원이 이르기까지야 땅 친민군인이 간악한 원수들과의

최후 결전을, 그로 하여 맞이하게 될 환희에 찬 최후승리의 그날을

바라고 또 바란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후 승리를 이어가자!

이것이 이 땅을 휩싸는 8월의 열기이고 의지이다. 바로 이것이 천

만의 심장에 하나로 고동치는 철의 신념이며 혁명의 맹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의를

위해 일떠선 인민을 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장장 60여

년, 우리는 참으로 아리고 시련에 찬 날과 달들을 살아왔다. 조국해

방 일흔이 되는 이해의 8월에 도강국의 발하늘가에 오르는 축포를

보면서 우리는 분별의 아픔을 생각했고 저 축포가 어서빨리 최

후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후 승리를 이어가자!

이것이 이 땅을 휩싸는 8월의 열기이고 의지이다. 바로 이것이 천

만의 심장에 하나로 고동치는 철의 신념이며 혁명의 맹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의를

위해 일떠선 인민을 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장장 60여

년, 우리는 참으로 아리고 시련에 찬 날과 달들을 살아왔다. 조국해

방 일흔이 되는 이해의 8월에 도강국의 발하늘가에 오르는 축포를

보면서 우리는 분별의 아픔을 생각했고 저 축포가 어서빨리 최

후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후 승리를 이어가자!

이것이 이 땅을 휩싸는 8월의 열기이고 의지이다. 바로 이것이 천

만의 심장에 하나로 고동치는 철의 신념이며 혁명의 맹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의를

위해 일떠선 인민을 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장장 60여

년, 우리는 참으로 아리고 시련에 찬 날과 달들을 살아왔다. 조국해

방 일흔이 되는 이해의 8월에 도강국의 발하늘가에 오르는 축포를

보면서 우리는 분별의 아픔을 생각했고 저 축포가 어서빨리 최

후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후 승리를 이어가자!

선군조선의 최강의 힘의 뿌리이다. 위대한 수령의 명도밑에 자기

그때에는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후승리를 이어가

자이다. 최후의 승리! 이 말이 얼마나 엄숙하고 책임적인

혁사의 선언인가를 우리는 잘 안다. 어찌하여 지구상의 크지

않은 나라, 조선반도의 일출출발의 정세를 전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세계인론들이 앞을 다투어

우리의 최고사령부 김급보도를 특대소식으로 전하고

있는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안다. 인류의 운명과 세계의

평화를 담보하는 조선의 최후승리이다. 행성의 운명과

인류의 미래에 새로운 장을 펼쳐질

우리의 승리이다. 조선의 신념은 어찌하여 하늘에 닿

았는가. 최후의 승리를 확인하는 우리 천만군민의 신념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최후의 승리를 바라하는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것이 이 땅을 휩싸는 8월의 열기이고 의지이다. 바로 이것이 천

만의 심장에 하나로 고동치는 철의 신념이며 혁명의 맹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의를

위해 일떠선 인민을 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장장 60여

년, 우리는 참으로 아리고 시련에 찬 날과 달들을 살아왔다. 조국해

방 일흔이 되는 이해의 8월에 도강국의 발하늘가에 오르는 축포를

보면서 우리는 분별의 아픔을 생각했고 저 축포가 어서빨리 최

후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후 승리를 이어가자!

이것이 이 땅을 휩싸는 8월의 열기이고 의지이다. 바로 이것이 천

만의 심장에 하나로 고동치는 철의 신념이며 혁명의 맹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의를

위해 일떠선 인민을 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장장 60여

년, 우리는 참으로 아리고 시련에 찬 날과 달들을 살아왔다. 조국해

방 일흔이 되는 이해의 8월에 도강국의 발하늘가에 오르는 축포를

보면서 우리는 분별의 아픔을 생각했고 저 축포가 어서빨리 최

후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후 승리를 이어가자!

이것이 이 땅을 휩싸는 8월의 열기이고 의지이다. 바로 이것이 천

만의 심장에 하나로 고동치는 철의 신념이며 혁명의 맹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의를

위해 일떠선 인민을 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장장 60여

년, 우리는 참으로 아리고 시련에 찬 날과 달들을 살아왔다. 조국해

방 일흔이 되는 이해의 8월에 도강국의 발하늘가에 오르는 축포를

보면서 우리는 분별의 아픔을 생각했고 저 축포가 어서빨리 최

후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후 승리를 이어가자!

이것이 이 땅을 휩싸는 8월의 열기이고 의지이다. 바로 이것이 천

만의 심장에 하나로 고동치는 철의 신념이며 혁명의 맹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의를

위해 일떠선 인민을 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장장 60여

년, 우리는 참으로 아리고 시련에 찬 날과 달들을 살아왔다. 조국해

방 일흔이 되는 이해의 8월에 도강국의 발하늘가에 오르는 축포를

보면서 우리는 분별의 아픔을 생각했고 저 축포가 어서빨리 최

후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후 승리를 이어가자!

이것이 이 땅을 휩싸는 8월의 열기이고 의지이다. 바로 이것이 천

만의 심장에 하나로 고동치는 철의 신념이며 혁명의 맹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의를

위해 일떠선 인민을 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장장 60여

년, 우리는 참으로 아리고 시련에 찬 날과 달들을 살아왔다. 조국해

방 일흔이 되는 이해의 8월에 도강국의 발하늘가에 오르는 축포를

보면서 우리는 분별의 아픔을 생각했고 저 축포가 어서빨리 최

후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후 승리를 이어가자!

이것이 이 땅을 휩싸는 8월의 열기이고 의지이다. 바로 이것이 천

만의 심장에 하나로 고동치는 철의 신념이며 혁명의 맹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의를

후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후 승리를 이어가자!

이것이 이 땅을 휩싸는 8월의 열기이고 의지이다. 바로 이것이 천

만의 심장에 하나로 고동치는 철의 신념이며 혁명의 맹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의를

위해 일떠선 인민을 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장장 60여

년, 우리는 참으로 아리고 시련에 찬 날과 달들을 살아왔다. 조국해

방 일흔이 되는 이해의 8월에 도강국의 발하늘가에 오르는 축포를

보면서 우리는 분별의 아픔을 생각했고 저 축포가 어서빨리 최

후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후 승리를 이어가자!

이것이 이 땅을 휩싸는 8월의 열기이고 의지이다. 바로 이것이 천

만의 심장에 하나로 고동치는 철의 신념이며 혁명의 맹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의를

위해 일떠선 인민을 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장장 60여

년, 우리는 참으로 아리고 시련에 찬 날과 달들을 살아왔다. 조국해

방 일흔이 되는 이해의 8월에 도강국의 발하늘가에 오르는 축포를

보면서 우리는 분별의 아픔을 생각했고 저 축포가 어서빨리 최

후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후 승리를 이어가자!

이것이 이 땅을 휩싸는 8월의 열기이고 의지이다. 바로 이것이 천

만의 심장에 하나로 고동치는 철의 신념이며 혁명의 맹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의를

위해 일떠선 인민을 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장장 60여

년, 우리는 참으로 아리고 시련에 찬 날과 달들을 살아왔다. 조국해

방 일흔이 되는 이해의 8월에 도강국의 발하늘가에 오르는 축포를

보면서 우리는 분별의 아픔을 생각했고 저 축포가 어서빨리 최

후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후 승리를 이어가자!

이것이 이 땅을 휩싸는 8월의 열기이고 의지이다. 바로 이것이 천

만의 심장에 하나로 고동치는 철의 신념이며 혁명의 맹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의를

최후승리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자

각지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 결전태세에 있다

기회는 아무때나 오지 않는다. 절호의 기회는 더더욱 그렇다. 바

로 이 땅에 친공을 추호도 살수 없는 기회, 최후승리를 앞당길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다. 값높은 존엄과 모든 영광을

도모는 이 소중한 어머니땅에 도모는

포탄탄사한 과연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인가. 나무 한그

루, 풀 한포기, 흙 한줌에도 쌓이고 쌓인

원한, 다지고 다진 복수의 서리발이

적들의 무모한 도발광기는 값비싼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끊어 번지는 원쑤격멸의 의지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있으며 이로 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으로 번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습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이 그대로 싸우는 전선으로 화했다.

21일 아침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에 접하고 일리로 달려온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원쑤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터지쳤다.

전쟁경계로 돌아가는 원쑤들에게 철수를 안기는 심정으로, 전시생

산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생산물격전을 힘있게 벌여나가는 방공원의 격동된 목소리가 공장구내를 들끓다높으며 울려 퍼지고 기동예술훈대원들이 부르는 전시가요가 생산자들의 투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현생선의 첫 공정을 담당할 방직종 합직업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기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년간 인민경제계획수행을 눈앞에 두고있는 이곳 종합직업에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에 접하고 전투목표를 더 높여 세웠다.

아침작업조 모임에 참가한 조급일군들은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기어올라가며 수행하여 죽을지 살지 모르고 미처 날뛰는 원쑤들을 보기 좋게 후려갈기겠다는 불같은 결의를 다졌다.

년간계획을 남기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는 한편 조급일군들이 원쑤들을 도와 기대도 돌리고 필요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기대수리도 맡아하고있으며 스스로 옥양공이 되어 작업을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 10-15분 걸리던 옥양작업이 5분만에 진행되어 생산속도가 빨라지고 로동자들의 생산열의는 더욱 높아졌다.

년간계획을 남기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는 한편 조급일군들이 원쑤들을 도와 기대도 돌리고 필요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기대수리도 맡아하고있으며 스스로 옥양공이 되어 작업을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 10-15분 걸리던 옥양작업이 5분만에 진행되어 생산속도가 빨라지고 로동자들의 생산열의는 더욱 높아졌다.

년간계획을 남기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는 한편 조급일군들이 원쑤들을 도와 기대도 돌리고 필요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기대수리도 맡아하고있으며 스스로 옥양공이 되어 작업을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 10-15분 걸리던 옥양작업이 5분만에 진행되어 생산속도가 빨라지고 로동자들의 생산열의는 더욱 높아졌다.

년간계획을 남기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는 한편 조급일군들이 원쑤들을 도와 기대도 돌리고 필요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기대수리도 맡아하고있으며 스스로 옥양공이 되어 작업을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 10-15분 걸리던 옥양작업이 5분만에 진행되어 생산속도가 빨라지고 로동자들의 생산열의는 더욱 높아졌다.



여기는 나라의 대규모석탄생산기지 2.8직동청년탄광이다. 민족의 머리에 전병의 불기둥을 불어오는 송산우뚝돌을 지구상에서 씨종자 하나 남기지 없이 모조리 초토화해버리자.

본노의 철구가 직동전역을 전강한다.

경애하는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반도에 우리들 겨냥한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황시적으로 떠돌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으며 강경한 자위적행위로 나라의 자주성과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나갈것입니다.》

순간도 지체없이 조국수호의 최전방으로 달려나가 싸이고싸웠던 원한을 털어버리려는 탄부들의 불같은 목소리들이 비발치는 속에 탄광의 지하막장에 위치한 전투지휘소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긴급회의가 열리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실감하여 새겨안고 《아지막생명을 다하여 우리 조국의 존호를 수호

삼시에 격전장으로 화한 굴지의 탄전

2.8 직동청년탄광에서

하!》라는 전투적호를 내걸고 기대에서 침식을 해가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인 탄광로동계급의 그 정신으로 석탄생산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펴올라자.

경애하는 원쑤들에게서 기사는 수도 평양의 불빛을 더 환하게 지키는것으로써 조선로동계급의 본래를 보여주자.

이런 결사의 의지가 피력된 협의회가 진행된 이후 지하막장은 원쑤격멸의 격전장으로 화하였다.

탄광의 기동채탄대들인 6개 채탄 1중대와 채탄 2중대, 1개 채탄 1중대와 채탄 4중대, 2개 채탄 5중대와 2중대, 청년채 채탄 1중대와 2중대 그리고 3중대, 8개 채탄 2중대, 9개 채탄 2중대, 11개 채탄 3중대와 2중대, 12개 채탄 2중대와 3중대 그리고 5중대의 탄부들이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높이 증산의 불길은 더 높이 추켜들었다.

채탄중대에서 한의 석탄이 라도 더 캐내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벌일 때 굴지탄광에서는 결사의 각오로 만장약탄전공들이 연속출공, 연속타파의 동음을 높이 울린다.

불도가마냥 증산투쟁으로 세차게 불어번지는 막장으로 지하막장에 로동자들이 앞을 다투어 들어선다.

탄광의 가두내명원들도 석탄 생산보장을 탄부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림장으로 펼쳐나 사회주의경쟁의 대하에 합류한다.



원쑤격멸의 의지로 만장약탄전공들의 거센 숨결을 보려면 종합베드본에이수정선으로 뒤임없이 흐르는 석탄을 보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 소식을 받아안자마자 잊고 그제 중학교를 졸업한 나이던 처녀들의 가슴에도 조국수호의 피가 끓어번졌다.

이들은 출근길에 당조직과 청년동맹조직을 찾아 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하였다. 우리의 행보를 빼앗으려는 원쑤들과 기어이 결판을 내자고 하면서 입대, 복대를 탄원한 이들은 지금 탄전의 전투현전선에 갖추어 고대들 더욱 역세게 들이쳤다.

생산물격전의 앞장에서 원쑤들의 도발을 짓궂게버리며 돌격로 열어나가는 1직동직업에서 로복혁신자들이 많이 배출되고있다. 공장적으로도 혁신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단위로 알려져있는 직업에서는 현재 7명의 직공, 수리공들이 2년분계획 완수를 눈앞에 몰고있다.

방직, 직포단원들이 아닌 공장이라고 해서 쉰수는 전선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마쳐 마련해주시었고 경애하는 원쑤들에게서 불면불을의 로고를 바쳐 꽃피워주시는 우리 생활을 열렬히 사랑하는 이곳 로동계급의 가슴속에서 원쑤들에 대한 증오는 용인치않고 끓어오른다.

우리의 존엄을 유린하고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려는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려는 이곳 로동계급의 기상인양 현생선의 돌들은 높이 울리고있다.

글 쓴사기자 신철호 사진 쓴사기자 신철호

멸적의 기상이 래동한다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은 나라가 격전장으로 화하였다. 거창한 창조의 노래소리 드높은 풍지수려한 대동강변의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도 원쑤격멸의 기상이 세차게 맥박친다.

경애하는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났을 해치며 싸워 승리한 활일혁명선열들의 필사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쳐야 합니다.》

우리앞에는 지금 불과 며칠전과 분위기와 완전히 달랐다.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이 펼쳐져있다.

40층건물에 이어 류용식으로 된 살림집건물들의 높이는 서로 다르다. 그러나 여기서는 오직 하나의 숨결만이 세차게 고동친다.

원쑤격멸의 의지를 안고 군인들과 건설자들이 수리개마냥 벼를 타고 내리고 자동차기둥들이 건물기둥에 형성되는 봉사당말초우에 총마루를 연방 들어올린다.

우리가 현실의 승월에 이끌려 조선인민군 김형일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많은 84-가호동 살림집건설장으로 다가가기를 때었다.

그들이 실고있는 모래를 부리는 중량화물자동차들과 기동예술훈대들의 뒤추악소...

우리와 탄탄 군관 송추혁부사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을 접한 때로부터 타일붙이기속도가 대동 1.6배로 높아졌다

고 이야기한다. 그의 말을 증명해 준것은 공사장 곳곳에 세워진 원쑤격멸의 의지로 만장약탄전공들의 거센 숨결을 보려면 종합베드본에이수정선으로 뒤임없이 흐르는 석탄을 보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 소식을 받아안자마자 잊고 그제 중학교를 졸업한 나이던 처녀들의 가슴에도 조국수호의 피가 끓어번졌다.

이들은 출근길에 당조직과 청년동맹조직을 찾아 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하였다. 우리의 행보를 빼앗으려는 원쑤들과 기어이 결판을 내자고 하면서 입대, 복대를 탄원한 이들은 지금 탄전의 전투현전선에 갖추어 고대들 더욱 역세게 들이쳤다.

생산물격전의 앞장에서 원쑤들의 도발을 짓궂게버리며 돌격로 열어나가는 1직동직업에서 로복혁신자들이 많이 배출되고있다. 공장적으로도 혁신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단위로 알려져있는 직업에서는 현재 7명의 직공, 수리공들이 2년분계획 완수를 눈앞에 몰고있다.

방직, 직포단원들이 아닌 공장이라고 해서 쉰수는 전선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마쳐 마련해주시었고 경애하는 원쑤들에게서 불면불을의 로고를 바쳐 꽃피워주시는 우리 생활을 열렬히 사랑하는 이곳 로동계급의 가슴속에서 원쑤들에 대한 증오는 용인치않고 끓어오른다.

우리의 존엄을 유린하고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려는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려는 이곳 로동계급의 기상인양 현생선의 돌들은 높이 울리고있다.

글 쓴사기자 신철호 사진 쓴사기자 신철호

남을 향해 폭풍처럼 내달리는 군인건설자들의 단숨에의 공격정신이 시시각각 느껴지는 격전장이다.

문득 림집단위에서 받은 살림집건물을 바라보니 벼베에 콧자락이 나뉘는 《청년강국》이라는 한눈에 안겨온다. 알고보니 속도천천히돌려 대지도록 제9려단 전투원들이 땀으로 온몸을 땀에 적시며 시간이 갈수록 기세를 높이고있다. 현장지휘관인 문철동무는 우리에게 벼베타일붙이기 마감단계에 이른 동시에 청년동맹대원들이 봉사당말초우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다고 귀뜸할때 문철동무를 비롯하여 군관, 병사들이 타일붙이기와 기둥기둥에 의한 모래운반이 성사되지 않아 한시간동안에 무려 15의 모래를 계단상으로 운반했다

고 이야기한다. 그의 말을 증명해 준것은 공사장 곳곳에 세워진 원쑤격멸의 의지로 만장약탄전공들의 거센 숨결을 보려면 종합베드본에이수정선으로 뒤임없이 흐르는 석탄을 보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 소식을 받아안자마자 잊고 그제 중학교를 졸업한 나이던 처녀들의 가슴에도 조국수호의 피가 끓어번졌다.

이들은 출근길에 당조직과 청년동맹조직을 찾아 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하였다. 우리의 행보를 빼앗으려는 원쑤들과 기어이 결판을 내자고 하면서 입대, 복대를 탄원한 이들은 지금 탄전의 전투현전선에 갖추어 고대들 더욱 역세게 들이쳤다.

생산물격전의 앞장에서 원쑤들의 도발을 짓궂게버리며 돌격로 열어나가는 1직동직업에서 로복혁신자들이 많이 배출되고있다. 공장적으로도 혁신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단위로 알려져있는 직업에서는 현재 7명의 직공, 수리공들이 2년분계획 완수를 눈앞에 몰고있다.

방직, 직포단원들이 아닌 공장이라고 해서 쉰수는 전선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마쳐 마련해주시었고 경애하는 원쑤들에게서 불면불을의 로고를 바쳐 꽃피워주시는 우리 생활을 열렬히 사랑하는 이곳 로동계급의 가슴속에서 원쑤들에 대한 증오는 용인치않고 끓어오른다.

우리의 존엄을 유린하고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려는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려는 이곳 로동계급의 기상인양 현생선의 돌들은 높이 울리고있다.

글 쓴사기자 신철호 사진 쓴사기자 신철호

은 나라가 격전장으로 화하였다. 거창한 창조의 노래소리 드높은 풍지수려한 대동강변의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도 원쑤격멸의 기상이 세차게 맥박친다.

경애하는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났을 해치며 싸워 승리한 활일혁명선열들의 필사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쳐야 합니다.》

우리앞에는 지금 불과 며칠전과 분위기와 완전히 달랐다.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이 펼쳐져있다.

40층건물에 이어 류용식으로 된 살림집건물들의 높이는 서로 다르다. 그러나 여기서는 오직 하나의 숨결만이 세차게 고동친다.

원쑤격멸의 의지를 안고 군인들과 건설자들이 수리개마냥 벼를 타고 내리고 자동차기둥들이 건물기둥에 형성되는 봉사당말초우에 총마루를 연방 들어올린다.

우리가 현실의 승월에 이끌려 조선인민군 김형일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많은 84-가호동 살림집건설장으로 다가가기를 때었다.

그들이 실고있는 모래를 부리는 중량화물자동차들과 기동예술훈대들의 뒤추악소...

우리와 탄탄 군관 송추혁부사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을 접한 때로부터 타일붙이기속도가 대동 1.6배로 높아졌다

고 이야기한다. 그의 말을 증명해 준것은 공사장 곳곳에 세워진 원쑤격멸의 의지로 만장약탄전공들의 거센 숨결을 보려면 종합베드본에이수정선으로 뒤임없이 흐르는 석탄을 보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 소식을 받아안자마자 잊고 그제 중학교를 졸업한 나이던 처녀들의 가슴에도 조국수호의 피가 끓어번졌다.

이들은 출근길에 당조직과 청년동맹조직을 찾아 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하였다. 우리의 행보를 빼앗으려는 원쑤들과 기어이 결판을 내자고 하면서 입대, 복대를 탄원한 이들은 지금 탄전의 전투현전선에 갖추어 고대들 더욱 역세게 들이쳤다.

생산물격전의 앞장에서 원쑤들의 도발을 짓궂게버리며 돌격로 열어나가는 1직동직업에서 로복혁신자들이 많이 배출되고있다. 공장적으로도 혁신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단위로 알려져있는 직업에서는 현재 7명의 직공, 수리공들이 2년분계획 완수를 눈앞에 몰고있다.

방직, 직포단원들이 아닌 공장이라고 해서 쉰수

은 나라가 격전장으로 화하였다. 거창한 창조의 노래소리 드높은 풍지수려한 대동강변의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도 원쑤격멸의 기상이 세차게 맥박친다.

경애하는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났을 해치며 싸워 승리한 활일혁명선열들의 필사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쳐야 합니다.》

우리앞에는 지금 불과 며칠전과 분위기와 완전히 달랐다.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이 펼쳐져있다.

40층건물에 이어 류용식으로 된 살림집건물들의 높이는 서로 다르다. 그러나 여기서는 오직 하나의 숨결만이 세차게 고동친다.

원쑤격멸의 의지를 안고 군인들과 건설자들이 수리개마냥 벼를 타고 내리고 자동차기둥들이 건물기둥에 형성되는 봉사당말초우에 총마루를 연방 들어올린다.

우리가 현실의 승월에 이끌려 조선인민군 김형일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많은 84-가호동 살림집건설장으로 다가가기를 때었다.

그들이 실고있는 모래를 부리는 중량화물자동차들과 기동예술훈대들의 뒤추악소...

우리와 탄탄 군관 송추혁부사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을 접한 때로부터 타일붙이기속도가 대동 1.6배로 높아졌다

고 이야기한다. 그의 말을 증명해 준것은 공사장 곳곳에 세워진 원쑤격멸의 의지로 만장약탄전공들의 거센 숨결을 보려면 종합베드본에이수정선으로 뒤임없이 흐르는 석탄을 보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 소식을 받아안자마자 잊고 그제 중학교를 졸업한 나이던 처녀들의 가슴에도 조국수호의 피가 끓어번졌다.

이들은 출근길에 당조직과 청년동맹조직을 찾아 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하였다. 우리의 행보를 빼앗으려는 원쑤들과 기어이 결판을 내자고 하면서 입대, 복대를 탄원한 이들은 지금 탄전의 전투현전선에 갖추어 고대들 더욱 역세게 들이쳤다.

생산물격전의 앞장에서 원쑤들의 도발을 짓궂게버리며 돌격로 열어나가는 1직동직업에서 로복혁신자들이 많이 배출되고있다. 공장적으로도 혁신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단위로 알려져있는 직업에서는 현재 7명의 직공, 수리공들이 2년분계획 완수를 눈앞에 몰고있다.

방직, 직포단원들이 아닌 공장이라고 해서 쉰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마쳐 마련해주시었고 경애하는 원쑤들에게서 불면불을의 로고를 바쳐 꽃피워주시는 우리 생활을 열렬히 사랑하는 이곳 로동계급의 가슴속에서 원쑤들에 대한 증오는 용인치않고 끓어오른다.

우리의 존엄을 유린하고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려는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려는 이곳 로동계급의 기상인양 현생선의 돌들은 높이 울리고있다.

글 쓴사기자 신철호 사진 쓴사기자 신철호

은 나라가 격전장으로 화하였다. 거창한 창조의 노래소리 드높은 풍지수려한 대동강변의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도 원쑤격멸의 기상이 세차게 맥박친다.

경애하는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났을 해치며 싸워 승리한 활일혁명선열들의 필사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쳐야 합니다.》

우리앞에는 지금 불과 며칠전과 분위기와 완전히 달랐다.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이 펼쳐져있다.

40층건물에 이어 류용식으로 된 살림집건물들의 높이는 서로 다르다. 그러나 여기서는 오직 하나의 숨결만이 세차게 고동친다.

제1선참호의 화선병사들처럼

안변군 천삼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잠시도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있을수 없으며 우리에게는 사소한 안일성, 헤이성, 권태증도 절대 허용될수 없습니다.》

미국의 특공하수인 괴뢰군 부조리관들에게 철수의 철수를 내리야 한다.

력사가 새겨준 철리를 심장에 간직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으로 가슴을 불어내며 불태워주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그의 말에 화답하듯 불이 나게 일군들은 다그치는 농업근로자들, 드디어 원적자들에 두대씩 트락트드들이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원적자들에 두대씩 트락트드들이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원적자들에 두대씩 트락트드들이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원적자들에 두대씩 트락트드들이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원적자들에 두대씩 트락트드들이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원적자들에 두대씩 트락트드들이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원적자들에 두대씩 트락트드들이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원적자들에 두대씩 트락트드들이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원적자들에 두대씩 트락트드들이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원적자들에 두대씩 트락트드들이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원적자들에 두대씩 트락트드들이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원적자들에 두대씩 트락트드들이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만들어놓고 물을 쏟아놓았다가 부피가 줄어 다음에 실어들이는것이 합리적이요 하였다.

그때 관리위원장은 미친개들 에게 여기에도 화선병사들이 있다는것을 특목하러들어오라 하였다. 소간들을 위장함을 의우고는 낚을 갈고 씨를 뿌리며 군방미를 마련하던 1950년대의 애국농민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모든 원수수단들을 통털어 물을 실어들이자고 하였다.

일군들은 한손에는 낫을,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불태워진것을 전후적으로 내밀기 위한 작전을 짜고들었다. 그들은 먼저 고장난 원적자들을 수리하여 트락트드들에 두대씩 달고 운전전투를 기동적으로 벌려도록 하였다. 일군들이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기술사, 기능공들과 함께 원적자들에 달려붙었다. 원수놈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의 철수를 내리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원적자들에 두대씩 트락트드들이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원적자들에 두대씩 트락트드들이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원적자들에 두대씩 트락트드들이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원적자들에 두대씩 트락트드들이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원적자들에 두대씩 트락트드들이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원적자들에 두대씩 트락트드들이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원적자들에 두대씩 트락트드들이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원적자들에 두대씩 트락트드들이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원적자들에 두대씩 트락트드들이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원적자들에 두대씩 트락트드들이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원적자들에 두대씩 트락트드들이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원적자들에 두대씩 트락트드들이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그무렵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원적자들에 두대씩 트락트드들이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원적자들에 두대씩 트락트드들이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원적자들에 두대씩 트락트드들이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적세합마다 높이 쌓이는데 불태워진것을 들어냈다. 원쑤놈들을 더 높이 세웠다. 그런데 30여년이라는 마치소리가 뒤임없이 울리는 속에 원적자들이 한데, 두대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동족대결의 참화를 몰아오는 역적의 무리들을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

최후 결전의 승리가 눈앞에 있다

미국장군을 통해 업고 신성한 우리 조국 땅에 기어코 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괴뢰역적배당의 발판을 위협계산을 넘어섰다. 모략적인 《지피복발》사건을 코에 걸고 전 전선에서 반공화국심리도략방송을 재개하고 배려살포양동을 일삼던 가증스러운 원수들이 마침내 전쟁의 불꽃을 땅탕 뒹기는 최악의 도발을 접어들었다. 괴뢰호전광들이 그 무슨 《북로란 발사》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신성한 우리 조국 땅에 수십발의 포탄을 탄사하는 위협친란한 군사적 양동을 부린 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에 도전하면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피눈이 되어 미처 날뛰는 이 더러운 역적 무리를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

우리의 인내력이 한계가 있다. 말로 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더더욱 판가리성전의 시각이 왔다.

피를 물고 덤벼드는 원수들을 결단코 요격하고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하자.

화환상에서 뿜어져나오는 거세찬 용암 마냥 선군의 힘, 천군만군의 별적의 의지가 단조롭게 불꽃하는 가운데 백두의 피성이 천하를 울리었다.

조선인민군 전선대원부대들이 복의 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장전 전선상태로 이전하여 전선지대에 준전선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하달!

경에는 최고사령관부대의 명령을 받아안은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적의 기상은 천하를 뒤흔들고있다.

경에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만약 적들이 력사의 법칙적인 전법을 망각하고 우리 공화국을 상대로 무모한 도발을 또다시 꾀한다면 우리 의 혁명적위장들은 침략자들을 최후멸망의 무덤속에 들어보내줄것입니다.》

하늘과 땅, 바다에서 원수들의 본거지들을 강력한 화력타격으로 초토화하고 집결노드같이 걸터앉아 일방백사자들의

만장약권 결사정신으로 전 전선에서 세차게 뛰어다니고있다.

민족의 원수, 통일 원수들에게 자비한 절대로 있을수 없다.

이제 총포성이 울리면 그것은 정의와 불의, 애국과 배국간의 가장 치열한 대결로, 선과 악의 총결산으로 필것이다.

일단 명명만 내려진다면 원수, 수제와 가증스러운 괴뢰호전광무리들을 깨끗이 격멸소탕하고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우리 군대의 별적의 의지를 보지 못하고 분별없이 도발의 불씨를 날린 부나비들이 참으로 가련하다. 전적전쟁짓을 보지 못한 어리석은자들이 제가 타격을 볼을 스스로 청하고야말았다. 미국장군을 믿고 삼살개처럼 들개같은 괴뢰들에게 몸서리치는 정벌의 시각이 다가왔다.

우리의 최후결전은 이 땅에서 전쟁의 군인을 송두리째 들어내고 공교한 평화를 안아오기 위한 정의의 성전이다.

우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완전무결하게 갖추었다. 적들이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대응해줄수 있게 준비되었고 한번의 싸움으로 저들을 괴멸시킬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승리의 작전노드 마련되었었다.

모든 타격수단들이 격동상태에 있다. 느르민 발사되고 불을 뿜은 침략의 본거지는 불바다가 될것이다.

우리의 백두산혁명군은 친출명정들의 손길이며 실탄총속에서의 피어린 유격과 혁명상 대비로 안되는 계국주의 연합체적력의 간고한 정구진, 수십년세월의 총포성능은 대결전도 벌여오면서 오직 승리를 쫓는 최정에 군대이며 상용무기에 의한 국지전이나 전전전, 전전전과 핵전쟁을 비롯한 어떤 형태의 대결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강력한 타격수단들과 결속의 진법을 완비한 혁명적의 군대이다.

역적인만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라 할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휘몰아치고 경에하는 원수님의 명령이

라던 불길속만리라도 뚫고나가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을 무자비한 징벌타격으로 말끔히 소탕해버릴 결사의 정신이 전군에 차넣고있다.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이 온 나라 인민의 심장마다에 만장약되어 있다.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원수, 통일의 암초를 기어이 없애버릴 일념으로 심장을 끓이고있다. 이 별적의 가장 앞을 누군들 전복하지 않을수 있었는가.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세계의 평화를 담보할 힘은 그 어떤 국제기구나 대국들이 아니라 오직 강철의 병장을 높이 모시고 하나의 신념으로 굳게 뚫힌 군대와 인민에게 있다는 진리를 오늘도 조선은 다시금 힘있게 파시하고있다.

전쟁은 결코 무장장비의 대결, 물리적 힘의 대결이 아니다. 사람의 정신력, 사상의 대결이다.

자기의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에 기초한 우리 천만군민의 힘은 그 무엇으로도 당할수 없다.

우리가 수십년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이 땅에 쌓아올린 선군의 성서는 평화를 위한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조국통일과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고귀하고 성스러운 담보이다.

평화가 귀중하기에 이 땅의 남포로 누구나 병사라 살아왔다. 평화가 아무리 귀중해도 절대로 구걸은 하지 않으리 우리의 총장우에 우리의 총장우에 평화와 평화가 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조국통일과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고귀하고 성스러운 담보이다.

평화가 귀중하기에 이 땅의 남포로 누구나 병사라 살아왔다. 평화가 아무리 귀중해도 절대로 구걸은 하지 않으리 우리의 총장우에 우리의 총장우에 평화와 평화가 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조국통일과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고귀하고 성스러운 담보이다.

혁명장군의 상대로 될수 없다.

상급과 동료들을 쓰아죽이거나 자살의 길을 택하는 사병들이 계속 늘어나는 죽음의 병영, 돈으로 병역을 조작하고 수습로 신세를 불구로 만들어 국적을 바꾸는 등 병역기피가 하나의 유행으로 된 한심한 풍조, 《대동명》지하방공포설계도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등 특급비밀까지 활영하거나 훔쳐내어 군수업체에 팔아먹고 피를 받고 죽기 바람공수들을 공급하거나 죽은 사병들의 조의금까지 횡령하는 썩어빠진 상층부, 군기가 엉망진창이 되어 세력기에 무기를 넣어 소제하고 녀성군인을 성노리개로 취급하는 더럽고 구역질나는 무리, 바로 이것이 미제의 전쟁대포반, 식민지고용군의 진면모이다.

지금 괴뢰호전광들이 그 무슨 《강력한 대응》과 《용정》을 떠벌이고 《도발》이 있으면 《혼자 싸우게 하지 않을것》이라는 미, 미국과의 《합동전략》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지원》하되나 하고 고이대고있으나 그런 허세나 부린다고 공포와 불안에 걸고 떨어버릴수 없다.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무분별한 동족대결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 도발자들은 특독히 알아야 한다.

우리의 타격은 일시에 전면불바다, 일격에 완전소탕, 단숨에 최후승리로 이어질것이다. 그것에서 《도발》이 《타격》과 《지인쇄력》, 《지위쇄력》에 대한 《용정의 기회》라는것은 당초에 바라지도 말라.

백두산혁명군은 온 겨레의 피라는 넘피와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인류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침략의 무리, 민족의 쓰레기들을 깨끗이 불마당 질해버릴 때까지 정의의 불을 쬐고 또 쬐을것이다.

정의로운 성전에 한걸음이 떨쳐나선 천만군민은 지금 격동된 심장으로 매일을 그려본다. 가슴후련한 최후승리의 그 시각을.

동학혁명 영웅선언서기 마더함 불장군수동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이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공격을 노린 《술지프 리엄 가더엄》합동군사연습에 광분하고있다.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수인명의 대병력과 최첨단 핵선제타격수단들 그리고 핵정기관들, 군수, 민간인들에게 소속된 민간인 수인명들이 여기에 투입되었다. 용근 하나의 전전전전 전을 지를수 있는 방대한 침략무리와 최신 전정장비들이 동원된 이번 북침전쟁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나, 훈련내용으로 보나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위험한 만만 핵선제타격연습이며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영토를 타고났으며는 무모한 불장군수동이다.

우리의 최고준엄을 노리고 선제공격으로 우리 제도를 전복시키는데 합동군사연습의 기본 목적을 두고있는에서 그것을 잘 알수 있다. 호전광들이 그것을 거론하고 있는것을 적 용활자라고 떠벌였다. 이 때 대미 남조선단세들은 이미전에 들고나왔던 전전전전 《작전계획 5027》, 《남조선태양》에 대비하기 위한 《작전계획 5029》, 《맞출명역적전력》, 《국지도발공동대비계획》을 간판만 바꾼것이라고 폭로하였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지난 시기 북침합동군사연습때마다 이 침략계획을 따라 실시하

격, 《남조선태양》대비 및 유도, 《북선정화작전》 등을 훈련의 부분적인 조항으로 조야하고 전쟁광을 일으켰었다.

호전광들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북해로의 진주 및 정벌작전》, 《용지구수입 및 안정화작전》들을 통해 우리의 영토를 장악하고 수위부를 에워싸는데 공격의 기본화살을 집중하고있다. 특수작전편에 참가한 무력이 보다 증강된것이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특수작전인수행은 기본으로 하는 미국남조선연합사단을 새로 조직하여 합동군사연습에 투입시키고있다. 연합사단의 주력은 남조선강점 미2사단이 합동군사연습에 투입된 미제침략군병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사실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위협성과 엄중성을 드러내보이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을 계기로 괴뢰군부대들이 최전선에서 대대적인 전정도발소동을 일으키며 《북의 원정 및 지휘부타격》을 공공연히 거론하고있는것을 더 무심히 지켜보아야 한다.

지난 4일 괴뢰호전광들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괴뢰군사병들에 의해 지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나자 이를 《북의 소행》으로 몰아붙이며 최전선일대에서 심리전방송을 재개하고 그 도수를 점점 높이고있다.

우리의 지역으로 더 많은 남침 화력배치를 날려보내고 남침은 동도발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전쟁불씨를 쬐기 다음 그것을 전쟁으로 확대하겠다는것이 바로 합동군사연습에 적용되고있는 《국지도발공동대비계획》의 골자이다. 그 실현을 위해 수천명의 미제침략군병력 남조선에 쏟아부어 남조선강점 미군과 함께 전쟁시위소동과 공격발발지를 차지하였다. 《2A》핵전략목표지를 비롯한 핵

격수단들이 조선반도주변에 배치되어 출동태세를 갖추고있다.

이 엄청난 정세속에서 호전광들이 끝내 우리에게 무모한 불질을 함으로써 합동군사연습이 우리의 신성한 영토를 침범할 야망을 실전에 옮기기 위한 전주목임을 스스로 폭로하였다.

미국은 조선반도제침야망에 들뜬 일본반동들까지 합동군사연습에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에는 그 누구의 란도미씨에 대한 방언은 편이 계획되어있다 한다.

문제는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이 훈련을 강행할 경우 일본 《사위대》가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어있는것이다.

지난해말 미국은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을 부추겨 미, 일, 남조선정보공유약정을 강행적으로 체결하고 그에 따라 미사일방위체계와 관련한 정보들을 서로 주고 받고있다. 미국은 서로 미국과 일본이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재개약함으로써 미군의 기지와 합점으로 향하는 미사일들을 요격할수 있는 권한이 《사위대》에 부여되었다. 따라서 이번 미국과 괴뢰들의 합동군사연습에 해외침략의 칼을 버리고있는 일본 《사위대》가 참가하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모든 사실은 미국이 이루지 못한 침략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고 미처 날뛰고있음을 특독히 보여준다.

박근해괴뢰역적배당 역시 불순한 《세계통일》의 개공을 이루어 보려고 미국과 북침전쟁당대에 출몰해 전쟁화환대를 더 질게 풍기고있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침략전쟁연습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대응도 최대로 거세어질것이라는 경고로 무심히 대하지 않아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조국 해방 70돐을 계기로 갈라진 민족의

합백을 있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온 겨레의 의지가 세차게 불꽃되어 있다. 최근 북과 남에서 진행된 통일행사는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겨레의 열정이 얼마나 강렬했었는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얼마전 백두산과 평양, 관문점에서는 조국해방 70돐 기념 민족통일대회 성대히 진행되었다. 지난 13일에 시작된 조국통일대행 백두산출정식에서는 조국통일3대헌장과 북남선언들을 분별의 대상으로 든든히 틀어쥐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지밀에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공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려는 확고부동한 의지가 표명되었다.

14일 평양에서는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찬모임이 진행되었다. 《민족대단결》, 《조국통일》, 《민족자주의 원칙》 등의 구호판과 꽃다발들을 든 환영공연, 하늘가로 메아리치는 《조선의 노래》, 《우리 민족끼리》, 《조선은 하나다!》의 웨침, 조국해방 70돐 기념 민족통일대회 기발과 통일기를 휘날리며 기쁨과 환희에 휩싸인 천만인민 참가자들이 하여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다. 모임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우리 겨레야말로 갈라져 살수 없는 하나의 민족임을 다시금 절감하였으며 품에 도통임을 안고 사는 드넓은 열방을 뒤에서 보아주었다. 침략적인 의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겨레의 통일열망을 짓밟는 북침포성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할 의지는 15일 관문점에서 진행된 자주통일대회에서도 힘있게 파시되었다.

남조선에서도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의 참가하여 통일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남조선인민들은 그 무슨 《비정치화》를 떠벌며 북과 남의 민간단체가 추진한 8.15 공동통행사를 가로막는 괴뢰배당에 대한 분노를 안고 조국통일의지를 피력하는 각종 행사들을 벌리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15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하는 내용의 포송문을 발표하여 각계의 통일기운을 고조시켰었다.

같은 날 조국해방 70돐, 8.15 공동선언발표 15주년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서울에서 8.15 민족통일대회를 가지었다. 로동자, 녀성, 청년, 통일선봉대원들, 시민사회단체 당국자 반공화국대결정책으로 거리의 평화와 통일을 도모하고있고있다. 단절되었다. 시간이 흘러 통일열망을 반영한 노래가 집회장에서 울려 퍼지자 여기저기에서 통일기가 휘날리고 통일구호들이 메아리쳤다.

이어 참가자들은 대형통일기를 펼치고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자주통일을 이룩할 의지를

다. 이자는 러무

니없이 그 무슨 《북의 지피도발》을 떠벌며 그에 대응한다는 구실만에 상전에게 《대북공조》 강화를 청탁하였다.

한편 북침전쟁열에 들뜬 호전광들은 반공화국심리도략방송을 전면체제하에 《북로란 발사》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우리측에서는 수십발의 포탄을 탄사하는 용담도 발발기를 부리었다.

괴뢰배당이 분열된 민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전쟁으로 통일을 바란다면 통일을 위해서는 겨레의 면전에서 감히 선전선고나 다름없는 엄청난 군사적도발을 감행해나서지 못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통일지향과 그에 배치되는 괴뢰역적배당의 호전적양동은 평화의 파괴자, 통일의 암적존재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군사적도발과 전쟁행동이 평화와 통일을 어릴수록 이것은 명백하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추구하는것은 나라의 평화적통일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해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용납할수 있었는가.

미국과 괴뢰배당이 제련한 《북의 도발》이 워니 하고 고이대고있지만 통일열기를 짓밟는 군사적도발의 포성은 전쟁의 발자취를 흉악한 정세를 날날이 고발하고있다.

본사기자 장윤남

백두산총대의 불맛을 보여줄 때는 왔다

남조선의 괴뢰군부호전광들이 우리의 신성한 영토를 향해 수십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엄청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는 소식에 질한 우리 속도전천년돌격대안의 전제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원수침략의 의지가 용암마냥 세차게 끓어넘치고 있다.

《북의 포탄》이라는것이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우리에게 포탄을 마구 쏘아낸 괴뢰군부호전광들의 망명을 보면 이놈들이 이제는 북침전쟁열에 들뜨다 못해 아예 미쳐버린 모양이다.

미제침략군의 대포발, 발파개노릇이나 하는 버려지같은 것들이 어떨이 커져도 분수가 있지 백두산총대에서 불마탄이 쏟아질 때 저들의 운명은

빈발을 모르는

반공화국대결정책의 총파산을 예감한 원수들이 멸망의 함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고 있다. 남조선괴뢰들의 분별없는 포사적도발소식에 질한 우리 전제 종엄정들의 눈에서는 원수격멸의 불길이 펠펠이 일고있다.

○도발자들을 씨족자도 남지

도발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의 불벼락을 안기리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나 하고 까를어대는가.

미천에게는 몽둥이질집이 제지없이 총독을 무력소로 해지기 위해 앞뒤를 무릅쓰고 지랄발광하는 괴뢰호전광들에게는 한사바머 무자비한 징벌의 철수를 내리야 한다.

이제 더는 괴뢰호전광들에게 말이 필요없다. 원수격멸의 중요도 북수성이 서러발치는 백두산총대가 얼마나 위력한것인지 적들은 저들의 주정앞에서 깨달을것이다.

침략바람을 일으키며 북침전쟁을 선동하는 박근해는 물론 그 바람에 넋을 잃고 도발의 앞장에서 헤엄치는 괴뢰군부호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내부행위들 도 목사발이 되는 비참한 말로를 면할수 없게 될것이다.

속도전천년돌격대지도국 공작부 지영철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지금 우리 대학안의 전체 청년학생들의 가슴속에는 더러운 모략과 위협한 군사적도발로 정세를 전쟁정경으로 몰아가고있는 박근해역적의 괴뢰호전광들에게 대한 열적의 의지로 용암마냥 세차게 끓어넘치고 있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들도 없는 목숨이건 나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도 아더 있고이라 하면서 결전의 길에 나섰던 리수복영웅을 비롯한 1950년대의 영웅들이 간직했던 조국수호정신이 우리들의 심장마다에 세차게 고공되고있다.

하루강자이 범 무수준으로 가는 격으로 덤벼드는 놈들, 감히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에워싸려고 무모하게 날뛰는 어리석은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절대 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있는 우리들은 운운이 그대로 총독한이 되어 원수들을 모조리 격멸소탕 하오 이 땅에서 전쟁의 군인을 송두리째 들어내겠다는것을 굳게 명세한다.

평양건축종합대학 건축대학 조급천년동맹위원회 위원장 김희철

박근해《정권》 놔두고서는 통일의 미래 없다

남조선인버트뉴스 《민족일보》가 14일 《박근해 《정권》 놔두고서는 통일의 미래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박근해배당이 말로는 《통일대박》을 웨치대지만 실지 반공일적행보로 일관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단적인 증거가 6.15, 8.15 민족공동행사를 파탄시킨것이라고 하면서 사설은 박근해배당이 남, 북, 해외 민간단체사내에 합된 민족공동행사에 용을 뒤집고 장소문제를 대해 사비를 걸다 못해 《남북관계발전에 지장을 초래할수 있는 정치적행

사서는 논한다.》는 리유를 내며 공동행사계획을 전면부정 하였고도 폭로하였다.

사설은 남북의 수뇌분들께서 합의하신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민족공동행사를 어떻게 비정치적으로 지시할수 있었는가고 강조하였다.

박근해배당이 편이 감행되는 인강쓰레기들의 반공화국배라살포행위를 《표현의 자유》니 워니 하는 구실을 내대고 미국 부호두둔하는 한편 미국과 아합하여 통일을 상대로 한 전쟁연습에 열을 올리면서도 미국이 감행한 북침세군전실행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도 못하고있다고 사설은 깨달았다.

사설은 상진인 미국의 리익을 우선시하는 박근해배당의 종미사태대결본질이 어서히 드러났다고 하면서 지금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와 각계 단체에서 8.15민족공동행사를 파탄시킨 박근해배당의 죄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민족의 리익은 양중에 없이 종미사태대국으로 일관하는 박근해 《정권》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통일의 미래가 없다는것이 다시금 확증 되었다고 사설은 주장하였다.

대결광신자의 본심을 드러낸 악행

우리는 민족통일대회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의 각계 대표들을 더욱 추동하기 위해서이지 단 예는 남조선의 민간단체들도 배외되지 않았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조국통일과 그 실현을 위한 민족통일대회에 대해 조급이라고 생각하던 대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민간단체들의 앞길을 용담 열이주었어야 한다.

그러나 괴뢰배당은 8.15 민족통일대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추진문제가 제기되자 앉아서 《민간을 통한 많은 접촉》이니, 《적극적인 지원》이니 하고 불행과 위애를 몰아넣어서 《정치적행사는 허용하기 곤란》하느니 워니 하는 배똥이진 소리를 외워대면서 민간단체들의 통일행사참가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였다.

우리가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민족통일대회를 진행하기로 한것은 북과 남, 해외의 통일운동단체들이 모여 외세의 반공일적 간섭을 풍자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며 연대연합의 강호로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추동하기 위해서이지 단 예는 남조선의 민간단체들도 배외되지 않았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조국통일과 그 실현을 위한 민족통일대회에 대해 조급이라고 생각하던 대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민간단체들의 앞길을 용담 열이주었어야 한다.

그러나 괴뢰배당은 8.15 민족통일대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추진문제가 제기되자 앉아서 《민간을 통한 많은 접촉》이니, 《적극적인 지원》이니 하고 불행과 위애를 몰아넣어서 《정치적행사는 허용하기 곤란》하느니 워니 하는 배똥이진 소리를 외워대면서 민간단체들의 통일행사참가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였다.

우리가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민족통일대회를 진행하기로 한것은 북과 남, 해외의 통일운동단체들이 모여 외세의 반공일적 간섭을 풍자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 열망을 짓밟는 북침포성

다. 이자는 러무니없이 그 무슨 《북의 지피도발》을 떠벌며 그에 대응한다는 구실만에 상전에게 《대북공조》 강화를 청탁하였다.

한편 북침전쟁열에 들뜬 호전광들은 반공화국심리도략방송을 전면체제하에 《북로란 발사》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우리측에서는 수십발의 포탄을 탄사하는 용담도 발발기를 부리었다.

괴뢰배당이 분열된 민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전쟁으로 통일을 바란다면 통일을 위해서는 겨레의 면전에서 감히 선전선고나 다름없는 엄청난 군사적도발을 감행해나서지 못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통일지향과 그에 배치되는 괴뢰역적배당의 호전적양동은 평화의 파괴자, 통일의 암적존재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군사적도발과 전쟁행동이 평화와 통일을 어릴수록 이것은 명백하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추구하는것은 나라의 평화적통일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해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용납할수 있었는가.

미국과 괴뢰배당이 제련한 《북의 도발》이 워니 하고 고이대고있지만 통일열기를 짓밟는 군사적도발의 포성은 전쟁의 발자취를 흉악한 정세를 날날이 고발하고있다.

본사기자 장윤남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절대 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있는 우리들은 운운이 그대로 총독한이 되어 원수들을 모조리 격멸소탕 하오 이 땅에서 전쟁의 군인을 송두리째 들어내겠다는것을 굳게 명세한다.

평양건축종합대학 건축대학 조급천년동맹위원회 위원장 김희철